

2024 년 10 월 16 일

여러분께 전하는 저의 다짐

가족 여러분께,

저는 신입 교육감이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생을 뉴욕시공립학교(NYCPS)에서 교육자이자 학부모로 살아온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브롱스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제 어머니께서는 교육이 성공과 충만함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기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2007 년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이유는 저 역시 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교육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Harry S. Truman High School 교실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고 학교 및 학군 차원의 행정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벅크스 전 교육감 참모로서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프로젝트인 Open Arms 를 맡아, 4 만 5 천 명 이상의 신규 뉴요커들을 환영하고 지원하는 작업을 선두지휘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맡은 역할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와 대외 업무 담당 부교육감으로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를 굳건히 다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학교 시스템을 안팎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또한 해가 지날수록 교직원들의 능력, 교실의 혁신, 가정과 학부모 리더들의 헌신, 학생들의 우수함에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곳에서 차기 교육감이 되는 것은 제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아담스 시장님 및 학교 시스템에 막대한 공헌을 해 주신 벅크스 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NYC Reads 부터 Student Pathways 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함께 시작한 이니셔티브는 진정으로 혁신적이었으며,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뉴욕시 학교들의 일상적인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NYCPS 학부모로서, 뉴욕시 학교들이 높은 학업 목표를 갖고 학습과 성장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마치 제 딸을 위해 하듯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가정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 조직 전체가 명확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뉴욕시 어린이들의 빛나는 시작과 힘찬 미래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우리가 함께
성취해낼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뉴욕시공립학교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하며,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교육감